

- 03 취재기획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 최초공개
- 04 사회 대학생 주거문제 돌파구를 찾다
- 06 사람사 품의대화, 박우홍 스포츠 마케터를 만나다
- 07 학술 행동경제학, 주류경제학의 구멍을 메꾸다
- 08 문화 버려진 공간 예술로 피어나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예정된 것보다 늦춰지나

아직 정확한 지표와 일정 나오지 않아 대학가는 예의주시중

교육부, 이달 11일 2차 공청회 개최 예정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한발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각 대학 관계자들은 평가 지표를 두고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1차 공청회 이후 이날 발표한 평가안이 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 교육부는 오는 11월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공청회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세부지표와 지표별 배점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될 평가지표는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차 공청회에서 공개한 평가지표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교 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서

본교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이하 구

조위는 평가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에 다시 한 번 구조위를 찾았다. 9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11월 3일 6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의의 내용은 대외비로 부처졌다. 현재 인적 쇄신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구조위는 구조개혁 평가 성적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구조개혁 관련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평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기에 본교 자체적으로 평가영역별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학사제도 또다시 개편되나?

대학구조개혁 평가 세부지표가 발표 예정인 가운데, 대학들은 각자의 지표 값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본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평가를 대비해 A학점 성적세척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학사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영우(교수지원팀) 팀

장은 "학점관리 등 학생들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A학점 성적세척 변경의 경우 평가를 목전에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는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렇다면 현재 본교는 어떤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있다. 장영우 팀장은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비전공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크고 더욱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 대학(ACE)이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재정·회계지표, 어떻게 개선해 나가나?

지난 3일 교육부가 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최초로 공개했다. 2013년 회계연도 지표로 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법인채무성 이 3개의 분야를 9개 지표로 구성하여 이를 각 5등급으로 구분했다. 본교는 장학금 지급률과 등록금 의존율, 법인 전입금 비율에서 전체 사립대학 142개교와 상대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장영우 팀장은 "재정·회계에 있어서 우선 궁극적으로 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폈다. 이어 "법인의 수익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지급률에 대해 장영우 팀장은 "장학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확보를 신청한 상태이다. 본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구조개혁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

대학구조개혁 법안 통과가 지시부진한 가운데 교육부는 법제화와 관계없이 구조개혁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

렇게 되면 지난해의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구조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II)에서 선정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평가를 지적하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시에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새로운 평가를 준비하던 학교를 이전의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

지난 2월부터 대학가에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일으켰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실체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대학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겠다는 구조조정이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 감축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형제·자매 장학증서 및 학술문화예술 공로상 수여식 진행돼



지난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총장실에서 '형제·자매 장학증서 수여식'과 '학술문화예술 공로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형제·자매 장학금 대상자 38명과 학술문화예술 공로상 대상자 17명이 참석했으며, 강신일 총장이 직접 장학증서와 공로상 및 기념품을 수여했다.

형제·자매 장학금은 형제·자매 2명 이상이 함께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순위자 1인에게 수여된다. 한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등록금을 내는 만큼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학기까지 80만 원이던 장학금액은 이번 학기부터 100만 원으로 올랐다.

학술문화예술 공로상은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서 일정한 수상자에게 수여된다. 장학금액은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1등급 70만 원, 2등급 60만 원, 3등급 50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50%만 지급된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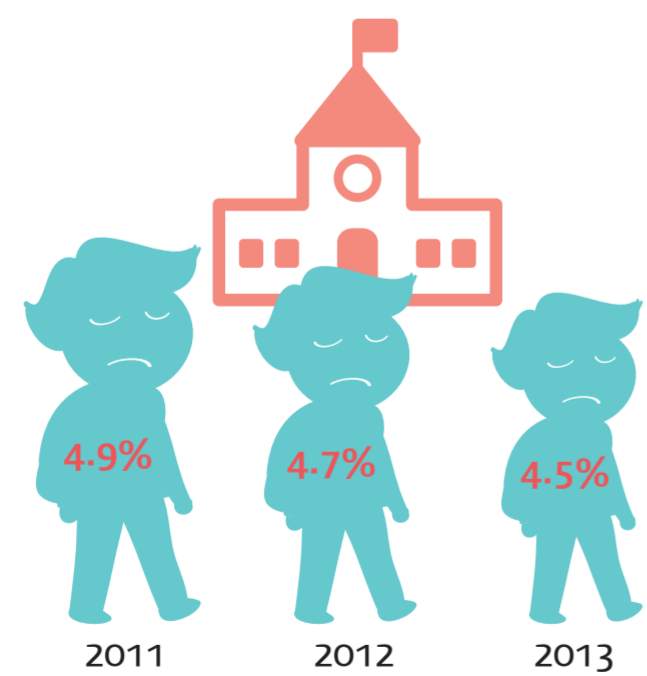
본교 중도탈락률 서울 사립대 39개교 중 4.5%로 31위 기록해

정보 공시 홈페이지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4년제 대학 222개교의 2014 대학 중도 탈락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해 대학 학생 100명 중 4명인 4.1% 정도가 재학 중 중도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10만 명에 육박하는 수로, 2010학년도 4.2%, 2011학년도 4.1%, 2012학년도 4.1%로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본교의 중도 탈락률은 어떤가? 본교는 13학년도 서울 사립대 39개교 중 4.5%로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사립대 중도 탈락률 평균 3.42%보다 1.08%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의 중도 탈락률은 11학년도에는 4.9%, 2학년도에는 4.7%를 기록해 매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본교보다 높은 중도 탈락률을 보인 학교에는 추계예술대(32위, 5.1%), 성공회대(33위, 5.3%)가 있다.

본교의 중도 탈락 사유는 중도 탈락자 총 478명 중 자퇴가 44.8%(129명)를 차지한데 이어 미복학(27.0%, 129명), 미등록(14.6%, 70명), 학사경고(13.2%, 63명)순이다. 실제로 본교 인문대 학생이었던 A씨는 자퇴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인문대 과목들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지만 공부할수록 법을 배우고 싶어졌다. 복수전공도 생각해 봤지만 본교 학과가 다양하지 않아서 다시 수능 준비를 하게 되었다"며 "나중에 용기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가 싫어서 중도 탈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중도탈락은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이유 등의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회문제는 취업난이 심해진다 보니 대학의 서열화로 높은 서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도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복지시설, 장학금 제도와 같은 지원을 통한 학교 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혜진 기자 hipo96@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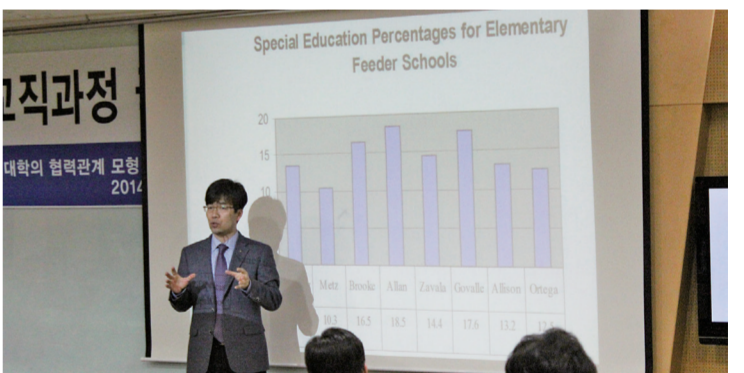
2014 한성대학교 "성공취업! 잡(job)·일(work)"

행사명	내용	일정	장소
취업특강 I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특강	특강① 10/28(화) 14:00 - 16:00	DLC
취업클리닉	1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집중클리닉	10/30(목) ~ 10/31(금) 13:00 - 18:00	스터디라운지
	2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집중클리닉	11/04(화) ~ 11/06(목) 13:00 - 18:00	세미나실(2실)
취업특강 II	인턴십특강(국내인턴십)	특강② 13:00 - 14:30	DLC(미래관B1)
	성공취업특강 -저스펙(지병대/학점3.29/토익235)으로 대기업/외국계/공기업에 합격한 노하우	특강③ 15:00 - 17:00	
	취업이벤트 -총명사건 촬영, '이미지 교정메이크업'	10:00 - 17:00	미래관B1 로비
	인턴십특강(해외인턴십)	특강④ 13:00 - 14:30	DLC(미래관B1)
	취업토크콘서트 -'취업 씨앗수다'	특강⑤ 15:00 - 17:00	
취업이벤트 -총명사건 촬영, '이미지 교정메이크업'	10:00 - 17:00	미래관B1 로비	

지난 10월 28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특강을 시작으로 2014 본교 "성공취업! 잡(job)·일(work)"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특강은 미래관 DLC 수용가능 인원을 넘는 약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 교수들의 지원 그리고 본교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특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성공취업! 잡(job)·일(work)" 행사는 기합소리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취감을 고취시켜 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런 행사는 전체적으로 개연성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취업 준비의 핵심이자 기본 사항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관한 집중 클리닉을 1차로 진행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취업 전제로 하는 인턴십 현황에 부합하여 국내·해외 인턴십 준비 방법과 합격한 성공 노하우 등에 관한 인턴십 특강을 강의한다. 또한 본인의 이미지에 맞게 기본 메이크업을 교정하는 '이미지 교정' 메이크업과 그에 적합한 옷차림에 대해 강의하고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취업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3일에는 사회자, 기업 인사담당자, 학생 대표로 구성된 토크 형식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취업토크콘서트도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혜진 기자 dhgwts0424@hansung.ac.kr



'2014 교직원 국제화 프로그램 특강' 미래관 ELC에서 열려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미래관 지하 ELC에서 '2014 교직원 국제화 프로그램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날 특강에는 양성관(건국대학교 사범대) 교수가 강단에 올랐으며 신재홍(교직원 및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와 본교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했다. '미국의 대학과 단원학교 협력 사례'를 주제로 한 이번 강의의 목적은 교직원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

드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양성관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소통이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문제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소통의 힘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박경호 수습기자

kyoung516@hansung.ac.kr



지난 여름방학 2014 한성인 문화탐방행담단이 4박 5일간 중국 상해를 탐방했다. >> 관련기사 5면 <한성인>

동정란

나은미(언어교육원) 교수 나 교수는 지난 달 18일에 (글쓰기 프로그램 성과 확산 세미나)의 요청으로 『한성대학교 Writing Center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공호근(산악협력단) 교수 공 교수는 지난 4일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무관승진 역량평가 행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보직교수 인적 쇄신 이루어져

지난 11월 8일자로 본교 보직교수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9월 강신일 총장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강신일 총장은 “대학교구조개혁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겠다”며 “제도적 쇄신과 함께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교무처장 이장원(행정학과) 교수 ▲기획협력처장 조혜경(정보통신공학과) 교수 ▲학생지원처장 겸 체육부장 김동환(한국어문학부) 교수 ▲총무처장 조자연(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인문대학장 겸 인문과학연구원장 서은경(지식정보학부)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원장 이내찬(경제학과) 교수 ▲예술대학장 겸 아트앤디자인커뮤니케이션센터장 지상현(시각영상디자인) 교수 ▲공과대학장 겸 공학연구원장/공학교육개발센터장 조세홍(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대학원장 최용식(경영학부) 교수 ▲대학원 교학부장 전주상(행정학과) 교수 ▲학술정보관장 강순애(지식정보학부) 교수 ▲전자계산소장 오종택(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장 한해련(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산학협력단장 김진환(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부단장 김상현(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 차종석(경영학부) 교수 ▲행정대학원장 이상우(행정학과)

교수 ▲예술대학원장 전완식(에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 정진택(행정학과) 교수 ▲부동산대학원장 임병준(부동산학과) 교수 ▲교육대학원장 김일민(컴퓨터공학과) 교수 ▲한성프레스센터장 조규태(역사문화학부) 교수 ▲출판부장 문기선(영어영문학부) 교수 ▲한국어문학부장 겸 일반대학원 한국어학과 주임/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주임 김정우(한국어문학부) 교수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주임 겸 일반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영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주임 평광주(시각영상디자인) 교수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교무처장 신민철(경영학부) 교수 ▲기획협력처장 노재학(무역학과) 교수 ▲학생지원처장 겸 체육부장 한해련(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총무처장 방갑산(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겸 인문과학연구원장 김덕자(영어영문학부)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원장 정승환(경영학부) 교수 ▲예술대학장 겸 아트앤디자인커뮤니케이션센터장 김지현(시각영상디자인전공) 교수 ▲공과대학장 겸 공학연구원장/공학교육개발센터장 정영모(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대학원 교학부장 차종석(경영학부) 교수 ▲학술정보관장 서은경(지식정보학부) 교수 ▲전자계산소장

주창업(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장 전주상(행정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이장원(행정학과) 교수 ▲산학협력단부단장 김진환(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 최용식(경영학부) 교수 ▲행정대학원장 김백우(행정학과) 교수 ▲예술대학원장 김효용(에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 오종택(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부동산대학원장 민태욱(부동산학과) 교수 ▲교육대학원장 권오(무역학과) 교수 ▲한성프레스센터장 이재태(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출판부장 지상현(시각영상디자인전공) 교수 ▲한국어문학부장 겸 일반대학원 한국어학과 주임/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주임 김동환(한국어문학부) 교수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주임 겸 일반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주임 평광주(시각영상디자인) 교수가 해임됐다.

한편 ▲입학홍보처장 홍정완(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언어교육원장 고창수(한국어문학부) 교수 ▲교육개발연구원장 이형용(경영학부) 교수 ▲공공인재학과장 최천근(행정학과) 교수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투자금융전공/부동산평가전공/부동산개발 및 관리전공/지역 및 토지관리전공 주임 임병준(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임명됐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단과대 학생회 입후보 마감돼

11월 18일·19일 양일간 투표 진행될 예정

단위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부후보	비고
총학생회	WTH	김윤환 (영어영문 3)	박소연 (경영 2)	단선
총대외위원회	새로고침	최치현 (컴퓨터공학 3)	곽은지 (정보통신 3)	단선
학생복지위원회	HUG	정승훈 (영어영문 3)	박승희 (정보시스템 2)	단선
졸업준비위원회	상상이상	임병국 (경영 2)	김한솔 (정보시스템 2)	단선
인문대학 학생회	4U	김재현 (영어영문 2)	정다솜 (지식정보 3)	단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예술대학 학생회	예목들	유예빈 (인류패션 2)	신혜수 (인테리어 2)	단선
공과대학 학생회	공감	임태승 (기계 4)	유준범 (산업경영 3)	단선

지난 11월 5일 오후 6시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현재 사회과학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단위에서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이번 선거는 모두 단선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6일부터 시작된 후보자들의 선거유세는 17일까지 계속되고,

투표는 18일(화)·19일(수)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정책토론회는 11월 셋째주에 진행될 계획이며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성대신문사, 방송국 HBS가 공동주최한다.

한재원 기자 126047@hansung.ac.kr

열심히 고민한 당신, 학생생활상담실로 떠나라

본교에서는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촌관 210호에 학생생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문가가 개인상담과 심리검사(MBTI, 적성진단검사, 이화방어기제 검사, MMPI, 자아실현검사, 자아개념 검사) 외에도 양성평등 상담을 연계하고 있다. 양성평등 상담은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종합심리검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상담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포함한 상담 건수는 총 1,305건에 육박한다. 그 중 집단상담을 제외한 순수 개인상담은 204건에 불과하다. 개인상담보다는 교육 장학금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용 건수는 총 1,101건에 육박한다. 이 이유이다. 이에 한성대 신문사는 본교 학생생활상담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전문적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재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본교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가의 상담 필요성을 전체 응답자의 58.3%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학생생활상담소의 운영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3.4%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상담소의 운

영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95.1%에 달한다.

본교 학생들이 학생생활상담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교내 상담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1.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생활상담소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개인상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이 23.3%로 많았다. 이외에도 ‘시간상의 이유’는 8.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기타 의견이 17.5%로 나타났다. 이은하(학생생활상담실) 상담실장은 “학생들의 개인상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학생들이 가장 상담을 받고자 하는 취업 분야에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방학 중에는 진로탐색 집단, 의사결정, 자기탐색 등 다양한 주제의 집단상담을 기획할 예정이다. 기존에 상담실에 준비되어 있던 심리검사 외에 MMPI-2, TCI, PAI, CST 성격강점 검사 등을 새롭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은하 상담실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상담실로 건의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든 학생생활상담실을 방문해달라.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좋다”고 덧붙였다.

오혜진 기자 dhgpw50424@hansung.ac.kr

서울권 34개 사립대학 중 본교 입학금은 27위

입학금 산정기준 없이 등록금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되고 있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입학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기준은 어떠한가. 이러한 입학금은 대학들이 그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이 규정한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을 근거로 대학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세정치민주연합 윤관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입학금의 근거, 기준, 용도가 불분명하며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대학들은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

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학생과 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공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학알리미 정보공시를 바탕으로 서울권 34개 사립대학과 본교의 입학금을 살펴본다. 2014학년도 서울 4년제 사립대학 34개교의 신입생 입학금 평균은 878,900원(십 원단위에서 반올림)이다. 34개교 중 입학금 1위는 고려대학교로 1,031,300원이다. 본교 입학금은 822,000원으로 27위이다. 그렇다면 본교의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수위, 산정기준은 무엇일까. 장영우(교수지원팀) 팀장은 “입학금은 등록금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히 산정기준이 없어서 입학금 사용처에 관해 구분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금의 대표적 사용처는 ‘2014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 ‘2014학년도 입학식’, ‘사교와 표현 및 대학과 지성 교재비’ 등이다.

본교의 입학금은 서울 4년제 사립대학 34개교 신입생 입학금 평균보다 낮다. 하지만 입학금 산정근거와 사용처 공개에 대한 규제 없는 현 제도로는 학우들의 입학금 이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입학금 규모를 축소시키고, 필요가 없다면 공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지은 기자 mongrock@hansung.ac.kr

〈2014 서울 4년제 사립대학 입학금 (단위: 천 원)〉

순위	학교	입학금	순위	학교	입학금
1	고려대학교	1,031.3	18	경희대학교	912
2	동국대학교	1,024	19	장로회신학대학교	907
3	한국의외국어대학교	1,007	20	송실대학교	900
4	홍익대학교	996	21	총신대학교	883.8
5	세종대학교	990	22	국민대학교	883
6	연세대학교	987	23	서울여자대학교	881
7	중앙대학교	980	24	삼육대학교	870
8	한양대학교	977	25	성공회대학교	836
9	서강대학교	969	26	감리교신학대학교	829
10	광운대학교	954	27	한성대학교	822
11	이화여자대학교	945	28	서경대학교	821
12	성균관대학교	944	29	추계예술대학교	800
13	건국대학교	938	30	동덕여자대학교	772
14	덕성여자대학교	933	31	그리스도대학교	686
15	성신여자대학교	932	32	서울기독대학교	680
16	상명대학교	928	33	한영신학대학교	500
17	숙명여자대학교	913	34	한국성서대학교	450

지금 이 순간



▲ 지난 11월 1일 미래관 지하 DLC에서 인도네시아 패션디자이너 해리 다르스노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한국의상디자인학회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해리 다르스노 디자이너가 ‘해리 다르스노 박물관’을 소개했다. 또한,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의상을 참석자들이 직접 착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2014년 제8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취지

1.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2. 지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
3.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지정 주제 (택 1)

1.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의미하거나 흥미로운 아날로그식 삶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장점을 설명하고 자신만의 아날로그식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2.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삶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가 불러올 수 있는 사회 문제(현상)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현상)를 타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시오.

대회 일정

1. 예선 접수 : 2014년 10월 23일(목) ~ 2014년 11월 12일(수) / 사고와 표현 연구실
2. 예선 심사 : 2014년 11월 14일(금) / 진리관 401호 (본선 진출자는 11월 14일 오후 개별 통보)
3. 본선 대회 : 2013년 11월 20일(목) / 미래관 DLC 오후 2시 ~ 오후 5시

심사 기준

- 발표 능력 평가 -
1. 논리적 설득력 및 전달력
 2. 내용의 창의성
 3. 슬라이드 구성 능력
 4. 발표 전략

시상 내역

- | | |
|----------------------|-------------|
| 최우수상 1명 (단과대학 구분 없음) | - 상금 50만원 |
| 우수상 4명 (단과대학별 1명) | - 상금 각 20만원 |
| 가작 5명 (단과대학별 1~2명) | - 상금 각 10만원 |

기타

1. 대회 참가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분 발급 가능
2. 대회 본선 당일 참가 및 참관 학생들에게 기념품 증정 [기념품 협찬 : 디자인 바치(DESIGN VACI)]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
(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
(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 최초 공개

본교의 재정·회계 상태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2013년 회계연도 지표로 대학알리미에 공식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교육투자, 재무안정성, 법인책무성이 3개 분야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이를 각 5등급으로 구분했다. 본교는 장학금지급률과 등록금의존율, 법인전입금비율은 두 번째 등급을 획득하였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환원율, 이월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세 번째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부채비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에서는 네 번째 등급을 기록했다. 한성대신문사는 본교의 재정·회계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사립대학 142개교의 지표별 평균값(이하 전체 사립대학 평균)과 본교(8,170명)의 학생규모가 비슷한 사립대학(5천 명 이상~1만 명 미만) 37개교의 지표별 평균값(이하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을 토대로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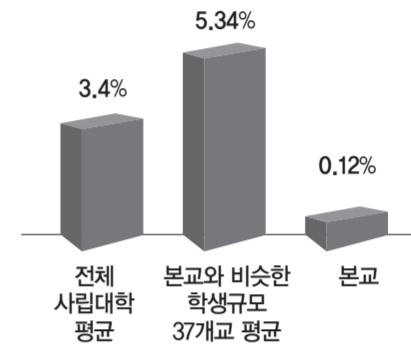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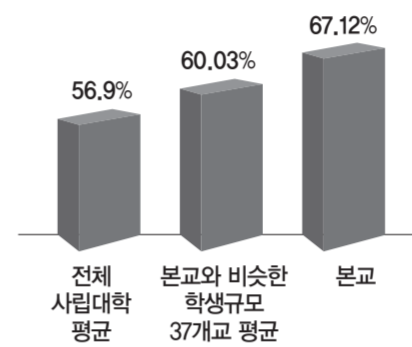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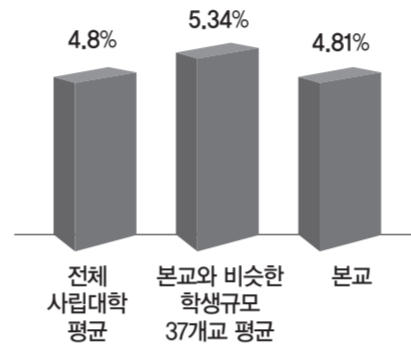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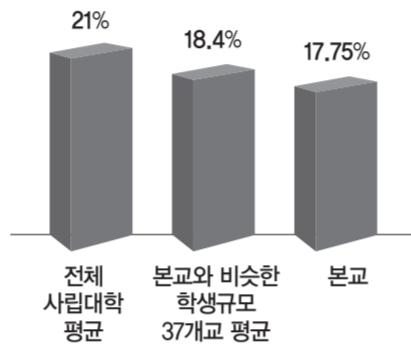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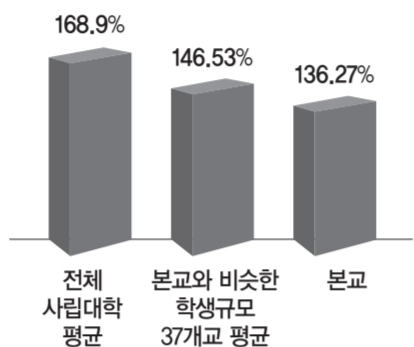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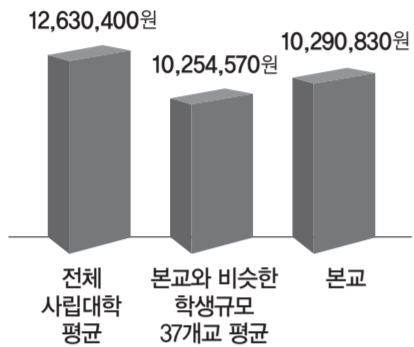
2014년 (결산기준 2013회계연도,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2014.4.1)



그래프 보는 법

각 지표는 1등급에서 5등급을 차지한다. 등급은 5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동심원 가장 바깥 선에 위치해 있다. 동심원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진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은 상대평가 지표이

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절대평가 지표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았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 비율은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금액이다. 금액이 높을수록 대학의 학생에 대한 연구비, 장학금 등 교육비로의 투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12,630,400원,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10,254,570원이다. 본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0,290,830원이다.

교육비 환원율

교육비 환원율은 등록금수입 대비 대학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비율이다. 이는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직접 교육비로의 재투자 비율로서,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 정도를 의미한다. 교육비 환원율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168.9%,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146.53%이다. 본교의 교육비 환원율은 136.27%이다.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지급률은 학생부담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이 부담한 등록금 대비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높아 등록금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장학금 지급률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21%,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18.4%이다. 본교의 장학금 지급률은 17.75%이다.

이월금 비율

이월금비율은 당기 자금총액 대비 당기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비율이 낮을수록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을 의미한다. 이월금비율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4.8%,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5.34%이다. 본교의 이월금비율은 4.8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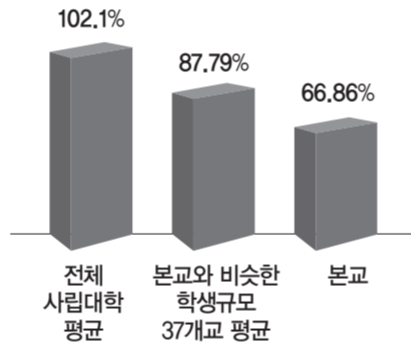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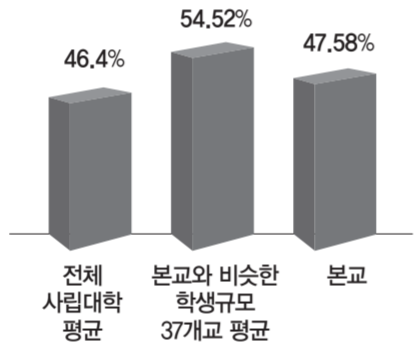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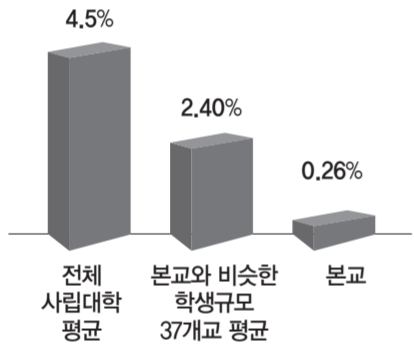
등록금 의존율

등록금 의존율은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등록금수입에 대한 의존도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수입에 대한 편중정도가 높아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다변화 요구를 의미한다. 즉 등록금 비율이 낮을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이 높다. 등록금 의존율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56.9%,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60.03%이다.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67.12%이다.

부채비율

부채비율의 분자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그 분모는 법인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비율로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부채비율이 클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기본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법인의 재무구조 특히 타인 자본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지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타인자본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 좋은 지표이다. 부채비율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3.4%,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5.34%이다. 본교의 부채비율은 0.12%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등급이 높은 그래프>



<비율이 낮을수록 등급이 높은 그래프>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운영 및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뜻한다. 쉽게 말해 학교로 들어오는 법인의 자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전입금 비율은 법인이 대학에 대해 얼마만큼 재정에 기여했는지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4.5%,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2.40%이다. 본교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0.26%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이러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제·공채 등이 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입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본교와 같은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1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의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46.4%,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54.52%이다. 본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7.58%이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 이행여부를 알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전체 사립대학 평균은 102.1%, 본교와 비슷한 학생규모 37개교 평균은 87.79%이다. 본교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66.86%이다.

이러한 지표는 개별 대학의 재정·회계 상태를 알기 위한 지역적 특성, 일시적 자금 관리, 재학생 현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한 회계연도로 해당 대학의 재정·회계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통해 기존에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식하고 있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상태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이 지표는 사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나타나지 못한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나를 깨다

더 빛나는 내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바란다면, 당신의 가슴속에만 갇혀있던 반짝이는 꿈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입니다. 가슴속 한편은 아직 청춘인 당신. 그 열정 식지 않도록 한성대 대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http://gs.hansung.ac.kr

2015 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1. 일반대학원(주간)

박사과정 (02) 760-4271

- 한국어문학과/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문화콘텐츠
- 영어영문학과/영문학, 영어학
- 사학과/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문화정보학과/문화정보학
- 경영학과/인사, 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경영,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 무역학과/국제무역학,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 경제·부동산학과/경제학, 부동산경제학, 부동산학
- 산업경영학과/경영학, 경영공학, 생산·품질경영, 안전 및 인간공학
- 정보경영학과/정보시스템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산업위생공학
- 미디어디자인학과/사각 영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인터랙티브미디어
-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메타디자인, 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석사과정 (02) 760-4271

- 한국어문학과/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한국어교육
- 사학과/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영어영문학과/영문학, 영미문화콘텐츠, 영어교육
- 문화정보학과/문화정보학, 기록관리학
- 무역학과/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무역학
- 경영학과/인사, 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경영,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 경제학과/경제학, 부동산경제학
- 산업경영학과/산업경영공학
- 멀티미디어학과/멀티미디어공학
- 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
- 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공학
- 정보시스템공학과/정보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기계시스템공학, 산업위생공학
- 회계학과/회계학, 재무관리
- 인류패션산업학과/인류패션 및 디자인, 인류학, 복식사 및 패션마케팅
- 무용학과/무용공연, 무용이론, [기독교무용]
- 미디어디자인학과/사각 영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미디어, 게임디자인, 영상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이론
-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

2. 특수대학원(야간)

경영대학원(석사) (02) 760-5844

- 경영학과/경영관리
- 호텔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 [글로벌창업경영학과]/[창업경영]

행정대학원(석사) (02) 760-5845

-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
- 미안인물학과/중독예방교육, [중독상담 및 심리]

예술대학원(석사)

- 패션디자인학과/패션마케팅, 패션프로모션 (02)760-4097
- 뷰티예술학과/뷰티예술, 헤어디자인, 뷰티스타일, 뷰티과학 (02)760-5740, 5970

국립과학사학원(석사) (02) 760-4318

- 국립과학사학과/국립과학사, 국립과학사, 군사사학
- 국립과학사학과/국립과학사, 국립과학사, 군사사학

자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석사) (02) 760-5797, 5987

-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메타디자인, 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부동산대학원(석사) (02) 760-5876

-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평가전공, 부동산개발 및 관리전공, 지적 및 토지관리전공

교육대학원(석사) (02) 760-5878

- 교육행정·관리전공, 상담심리전공, 영어교육전공, 영미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 [] 표시 학과(전공)는 신설(예정)학과 진행 중입니다.

원서접수 및 발표

- 접수기간: 2014. 11. 24(월) 10:00 ~ 12. 1(월) 17:00
- 접수방법: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후, 우편이메일로(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접수
- 면접일: 2014. 12. 6(토) 10:00 ~ (화요일 변동가능)
- 합격발표: 2014. 12. 19(금) 14:00 이후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생 주거문제 돌파구를 찾다

대학생 기숙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대학 역시 조금씩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고 있다. 이화여대는 84%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새 기숙사를 설립하려 했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생존권과 환경문제로 기숙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주거지를 보장해주지 못하기에 대학생들은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 민달팽이 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달팽이집 1호 내부.

하지만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3%에 달한다.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 미달이거나 반지하, 옥탑 또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의미한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나타내는 통계가 바로 주거빈곤율이다. 주거 환경의 질이 낮음에도 서울 청년의 실태조사 결과 원룸의 평당 관리비는 1만 876원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기준 아파트 평당관리비 5,613원보다 훨씬 비쌌다.

이러한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학교 기숙사 외에 학생들의 주거고민을 덜어줄 여러 해결책을 취해왔다.

행복 기숙사

서대문구 흥제동 행복(연합)기숙사(이하 행복기숙사)는 국내 최초로 마련된 연합형 기숙사다. 교육부에서 국유지를, 서대문구에서 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곳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75억원을 투자해 총 159억원을 들여 지난 8월 준공했다. 지난 9월에 문을 연 행복 기숙사는 쾌적한 시설과 민자 기숙사에 비해 40%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숙사의 전체 수용인원은 516명이며 기숙사 비용은 19만원에서 24만원 사이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며 신청유형은 일반입사와 추천입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입사는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천입사는 수용인원의 85%를 차지

하며 행복기숙사와 사전에 합의된 13개 대학의 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천입사는 학생의 출신대학에서 한 학생당 매달 5만원씩 지원해줘야 한다. 따라서 추천입사를 통한 학생들은 일반입사에 비해 월 5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할 수 있다. 행복기숙사는 서대문구청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입주자 516명 중 약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주일에 4시간가량 교과목 공부나 체육활동을 하며 교류하게 된다. 입주자들은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면 매달 4만원씩 지원받아 추가로 기숙사 비용이 절감된다.

행복기숙사의 입주자 김보미(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2) 학생은 “열람실, 피트니스 클럽, 멘토링실 등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돼 불편함이 없다”며 “특히 식당의 경우 청결하고 음식 맛도 좋아 기숙사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본교는 추천입사 해당대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입사라도 지원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복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남자좌동 달팽이집

남자좌동 달팽이집은 협동조합의 형식을 통해 청년주거의 안정화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이다. 현재 5명의 입주자가 달팽이집 1호에 입주하고 있으며 '12월 초' 달팽이집 2호에 12명의 입주자가 입주할 예정이다.

남자좌동 달팽이집을 기획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총 127명이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주택을 장기임대하여 시가의 75%까지 집세를 낮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져야 하는 공실 리스크,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을 조합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출자금은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6주좌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주일에 4시간가량 교과목 공부나 체육활동을 하며 교류하게 된다. 입주자들은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면 매달 4만원씩 지원받아 추가로 기숙사 비용이 절감된다.

방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조합원이라는 조건 외에는 달팽이집의 입주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과 관련하여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씨의 인터뷰를 보면 “기존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공유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붕 세대공감

‘한지붕 세대공감’(이하 ‘세대공감’) 사업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들 연결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이다.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종로구,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로 총 4개 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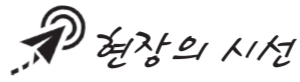
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해당구역에 거주하는 주생활 공간의 임대 가능 방을 1개 이상 소유한 노인과 신원이 확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된다.

세대공감 사업에 참가하는 장은영(건국대 기계경영 2) 학생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우연히 학교에 붙여진 플랜카드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비싼 기숙사비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지만 따뜻한 주인 아주머니와 가끔씩 술 한 잔도 하며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집주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니까 확실히 무서움이 덜하고 부모님도 안심하신다”며 세대공감 사업에 참가할 때 일행에 신경을 쓰고 어렵더라도 친근하게 어르신을 대한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영 양과 함께 사는 집주인 오화진 씨는 스포츠센터에서 우연히 ‘한지붕 세대공감’을 홍보하는 직원을 만났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4년 동안 혼자서 살았던 오화진 씨는 외로운 마음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막상 새로운 사람과 산다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세대공감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예쁜 손녀딸을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도와준 담당자 분에게 참 감사하다”며 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만족시키는 세대공감은 곧 성북구에서도 진행됐다. 오는 12월 초부터 세대공감 사업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 인 성북구 소재 대학 재(휴)학생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총수입이 월 510만원 이하 수준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대

노유진 기자 ty32108@hansung.co.kr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교육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역시 각종 교육 현안과 이슈를 다루며 숨 가쁜 국정감사 일정을 보냈다. 그런데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대학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체찍’과 ‘당근’이 아닌 ‘체찍’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등록금을 비롯해서 적립금, 대입전형료, 학점 등 대학들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다. 동시에 대학들은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무엇보다 적립금과 대입전형료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면서 대학들은 등록금과 전형료 인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 대학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더군다나 대학은 최고의 학문기관이다. 따라서 잘못에는 엄격하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여론편승식’ 또는 ‘여론몰이식’ 문제제기가 아닌 고민과 고충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대

학을 바라본 시각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학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생각에 서다. 심지어 의 원실에서 25년 간의 홍보비 집행 현황을 요구했다가 대학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대학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실 지금 대학들은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취업률을 높여야 하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등록금 인하도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전 세계 대학들과 견줄 경쟁력 역시 키워야 한다. 이처럼 대학들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한다. 대학들이 저지른 명백한 부정과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과 쓴소리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되, 대학이 가진 고충과 고민에 귀 기울이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대학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취업률이 대표적이다. 실제 교문위 소속 김태연 의원이 공개한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실용학문

학과가 증가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대학들이 기초학문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학들의 잘못일까? 아니다. 취업률을 평가의 잣대로 내세워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문제다. 김태연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바로 이러한 관심이 지금 대학에 필요하다.

한 대학 교수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치권 등에서 대학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대학의 경우 학부모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초중고의 경우 학부모들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나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에서 어찌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바람이 있다면 교문위 소속 의원들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소위 ‘칼 것만’ 찾지 말고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기 전에 대학이 왜 등록금 인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동시에 제안하는 모습, 그리고 대학이 어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대학들은 동내북 신세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독립채산제 특수대학원 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지

2013학년도와 2012학년도
2개 년도의 독립채산제 특수대학원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3학년도 (2014년에 평가)		2012학년도 (2013년에 평가)	
1위	경영대학원	1위	경영대학원
2위	국방과학대학원	2위	부동산대학원
3위	부동산대학원	3위	국방과학대학원
4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융합기술학과	4위	예술대학원 - 패션디자인기획학과
5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5위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6위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6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융합기술학과
7위	행정대학원 - 마약알콜학과	7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8위	교육대학원	8위	교육대학원
9위	예술대학원 - 패션디자인기획학과	9위	예술대학원 - 뷰티예술학과
10위	예술대학원 - 뷰티예술학과	10위	행정대학원 - 마약알콜학과

노유진 기자 ty32108@hansung.co.kr

청년 CEO를 만나다

안전한 개인간의 거래를 위해, 헬로마켓



▲ 한상협 이사와 '터크앤컴퍼니' 직원들의 모습.

‘이건 꼭 사야돼!’라는 생각으로 떨컹 무언가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가? 필요해서 샀는데 먼지가 쌓이도록 쓰지 않아 구매 후회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기지는 종종 중고시장을 이용하여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한다. 이번호에서 중고시장 웹사이트로 알려진 ‘헬로마켓’을 운영하는 ‘터크앤컴퍼니’의 한상협 이사를 만났다.

터크앤컴퍼니는 4년 전 각기 다른 전공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5명이 모여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상협 이

사는 서울대 교수출신이었다. 논문연구를 하면서 지금하고 있는 직업이 평생 자신이 할 직업인지 고민되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였던 이후국 터크앤컴퍼니 대표에게 같이 창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회기적인 아이템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응하게 되었고, 터크앤컴퍼니의 공동창업자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대형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개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토바이카페’나 ‘골프카페’와 같이 주로 한쪽 분야에만 특화된 카페였다. 또한 상품이 흩어져 있다는 점과 카페가 중개공간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거래가 불편하고 불안정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터크앤컴퍼니는 개인간 거래서비스 ‘헬로마켓’을 개발하였다.

헬로마켓은 터크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개인간의 거래를 위한 공간이다. 중고물품을 팔거나 티켓을 양도하는 등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 사이트에서 신고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했다. 아울러 치트라는 사기피해 정보 공유사이트에서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받아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헬로마켓은 C2C(consumer to customer) 비즈니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 C2C 비즈니스는 소비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의미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불린다. 유저들의 신뢰도, 결제와 관련된 안전성 등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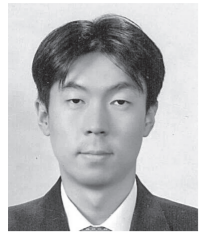
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헬로마켓’을 이끄는 것은 소비자가기 때문에 초기에 헬로마켓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전문판매업자를 통해 아이템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올려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철학대로 갔다. 한상협 이사는 “C2C 비즈니스의 경우 활성화과정에서 실패하는 사업이 많다. 따라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까지 진한 인내심과 냉철하며 현실적인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상협 이사는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팀원과의 논쟁 방식이라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기업을 이끌려면 각자의 열정으로 인해 의견의 충돌과 대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때 논쟁의 이유를 명확히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기업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조언을 남겼다.

노유진 기자 ty32108@hansung.co.kr

연구년 복귀 小考



교단에서

계희원 교수
(정보시스템공학과)

원고 청탁이다. 연구년을 마친 교수님들을 배회하다가, K 교수님의 인도에 따라 나에게 도달하였다. 몇몇 교수님들의 평안과, 떨리던 목소리의 지면 담당자를 위해 나는 비어있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원고를 청탁 받은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 저절로 키워드는 연구년이 되었다.

컴퓨터 게임은 사용자를 몰입시키기 위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다. 눈앞의 적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새로 얻은 무기를 조화롭게 배치하며, 팀 동료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 오늘 나는 4시에 있을 강의를 준비한다. 2시에 면담이 있으니 그 시간은 비워 놓는다. 특강을 부탁 받아, 주말까지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다음주는 발표 자료를 만들 것이다. 이번 달에는 진행중인 논문들을 투고할 예정이다. 탈락해서 슬픈 과제 제안서도 더 손봐야 한다. 하지만, 이 원고는 오늘까지 완성해야 한다. 나를 제물로 소환한 K 교수님을 잠시 원망해보지만, 혹사당한 간과 누적된 피로가 협업해서 빚어낸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원망은 없고 공감과 위로가 있을 뿐이다.

시간은 훌쩍 지난다. 2007년 연구관에 방을 배정받고 짐을 옮길 때, 9층 복도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일년씩 시간이 지나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학교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흐르던데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미 7년이 흘러 있고, 연구년은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2013년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Davis라는 도시에 있었다. 집에서 5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농사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조용한 대학도시이다. 자전거를 타고 숲을 지나서 출퇴근 길엔 시간도 느긋이 흐른다. 큰 연바퀴의 구식 자전거를 수놓은 스웨터의 모델이 된 기분이다. 자전거에는 겨울이 없어 그 기분은 오래간다.

내가 속했던 연구실은 중국계 구성원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의 분위기와 유사했다. 내가 학생에게 하던 조언과 잔소리를 먼 나라에서 똑같이 듣는 놀라운 경험도 하였다. 철단 분야를 체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오산이었다. 완전히 일치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학계의 최신 유행은 단지 새롭고 재미있는 남의 연구였다. 나의 기존 연구에 조언을

받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매주 월요일 세미나 시간에는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았다. 학생 발표자는 항상 준비를 잘 해왔고, 각종 질문에 무너지지 않는 점도 훌륭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식견이 항상 탁월한 것은 아니어서 역시 사람 사는 곳을 느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긴장하던 기억, 언어 문제로 생긴 웃을 수 만은 없는 사건, 여행에서 보았던 장관은 수 천 장의 사진이 잘 보존하고 있다. 귀국할 때가 되자, 연구년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자주 생각하였다. 개인적인 추억 외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졌던 경험이었다. 관공서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기구를 직접 조립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였다.

귀국은 했지만 여유있던 그 느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 우선 부담과 기대를 놓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며, 스스로 행동하려 하고 있다. 여유를 갖고 작성한 이 원고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한다.

· 사 설 ·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준비를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그치면 수많은 낙엽이 마당을 뒤덮고 기온은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몸과 맘으로 느끼고 있다. 짙은 녹색을 자랑하던 나뭇잎들이, 각각각색의 단풍들을 뽐내더니, 이제 낙엽으로 마당을 휘둘고 있다. 낙엽은 어딘가로 쓸러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바람은 더욱 쌀쌀해지고 매서운 북풍이 덮칠 것이다. 어느 날에는 찬 바람과 더불어 새하얀 눈들이 온 세상을 덮을 날도 있을 것이다.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더 추워지기 전에,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에는 겨울을 준비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우리대학교 준비해야 한다. 찬바람이 더 매서워지기 전에,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잠재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찬 바람이 시작되는 이때쯤이 되면 우리나라는 수학능력시험이라는 행사를 치러야 한다. 수능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육의 잠재적인 수요자들이다. 대학교육의 수요자들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1학년도에 71만명이 달하던 수능을 시작자들이 2015학년도에는 64만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불과 4년 만에 수능을 시작 수가 10% 정도 줄어든 것이다. 바람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대비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찬바람은 예외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국민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적당할 일자리

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난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다. 당신이 대학문을 나서서 순간 현실의 찬바람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현실은 냉정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본인책임이 된다.

준비해야 한다.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늘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의 일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과거의 단풍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기존의 것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꾀는 아픔을 겪고서야 나타난다. 꺾짐을 깨기 위해서는 기존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 겨울에는 겨울옷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에는 겨울옷을 준비할 수 없다. 아직 조금의 시간이라도 남아있는 지금이 바로 겨울을 준비할 때이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춥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 더 잘 월동준비를 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매서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희망과 인내심으로 견딜 것이다. 겨울을 무사히 넘긴다면 따뜻한 봄날이 다시 오겠지만, 그것은 겨울의 찬바람을 무사히 견뎌낸 후의 일이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11월, 선거의 바람이 분다

벌써 새로운 학생회를 맞이할 시기가 왔다.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공과대 총선거와 함께 각 학교 학생회 선거까지 201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학생회에 투표해야 할 시기가이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임후보자가 없는 사회과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단위 투표가 단선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경쟁후보가 없는 만큼 이번 투표에 학생들이 던지는 한 표는 어쩌면 전적으로 학생사회에 대한 '신뢰'에 대한 한 표일 것이다.

학생의 신뢰로 구성된 학생회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 학생과의 소통이다.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던 대학사회에서 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우들과 소통해왔다. SNS를 통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쌍방향 소통으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대부분 학생회 임원들이 공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일반 학우들은 이를 스쳐지나거나 특별한 사안 있을 때만 반응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 게시와 같은 아날로그적 소통이 아닌 SNS, 홈페이지 게시, 단체 SMS 전송 등의 다양한 디지털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후보자들의 공약 속에는 '학우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왜일까? 이러한 매체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웃 대학에서 학생회 관련 이슈가 연달아 터졌다. 임기 말에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해 관계 임원들이 징계를 받고, 선거를 앞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밀실정치 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학생회에서 일반 학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상명하달식 소통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때이다. 학생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후 어느 정도 수습한 뒤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회의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그 결과만을 공지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소통일까.

말로만, 글로만 쉬쉬 보이는 것이 바로 소통일 것이다. 그럼에도 다가올 선거를 앞둔 임후보자들에게 기대해본다. 학우들의 한 표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표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과 신뢰에 큰 소리로 응답해주기를. 11월, 선거의 바람이다.

우리들의 연결고리, 협동조합



기자수첩

노유진 기자
(경영 1)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곤 한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사례로는 썬키스트(미국)와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있다. 썬키스트의 경우 6천여 명의 오렌지 농민과 협동조합이 중간 상인의 독과점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협동조합이다. 또한 FC바르셀로나는 축구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 클럽이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무엇이며 왜 협동조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일까? 협동조합은 일반 소비 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꾸려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5명 이상이 모여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조합원 모두가 주인이며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고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이윤은 공동배분된다.

협동조합은 대학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494호에서 다룬 대학생활협동조합과 이번 호에서 다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그 예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은 조선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발

전하기 시작했다. 생활은 경제적인 소비생활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주 목적으로 삼아 대학 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전국 33개의 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조합원 수는 총 13만 명이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하 '민달팽이')은 청년들의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민달팽이'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이 외에도 공인중개 서비스와 주거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보험'과 '금융'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무지킴이관 등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4명 이상의 지인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성대의 숨겨진 보석, 교내 프로그램



낙산에 올라

이현주 학생
(정치 3)

처음 필자가 한성인이 되었을 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성대를 다니면서 그 아쉬움은 점차 사라지고 한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커져갔다. 바로 다양한 우리학교 프로그램 때문이다.

먼저, 학생 주도 협동학습 프로그램인 '한성 튜터링'이 있다. '한성 튜터링'은 전공 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튜터)과 그 과목의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튜티)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매주 모여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필자는 신입생 때 튜터링을 통해 선배 튜터로부터 많은 학업적 도움을 받아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인 '컴퓨터언어'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으며, 같은 과 동기, 선배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둘째, English Lounge에서 진행되는 'Group Speaking'이다. 모든 대학생에게 영어가 필수인 이 시대에 직접 원하는 방향으로 영어 계획표를 제출해 외국인 교수님이 도와

주는 형태라 자신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채울 수 있으며, 무료이자 소규모그룹이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영어실력도 키우고 1학점도 인정해주는 Open Activity나 교양영어실에서 학기중, 방학마다 운영하는 무료 수준별 토익강의를 통해서 나만의 맞춤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도 있다.

셋째, 재학생의 학술연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인 '학술소모임'이다. 소모임 신청은 방중에 받는데, 공모전 모임, 프로젝트 모임 등 다양하게 신청해, 심사가 통과되면 지원금을 받고 시작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금이 있어 좀 더 학술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나중에는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등을 뽑아 지원금을 더 주는 형식이라 동기부여도 된다. 또한 소모임 학생들간의 많은 정보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의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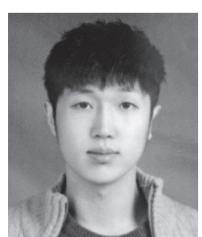
이 밖에도 아직 필자가 경험하지 못한 훌륭한 교내 프로그램들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도 재학생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궁금해 하다가 지난 한성대신문의 (높은 취업 체감도에 비해 낮은 교내 프로그램 이용률)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유는 '홍보 부족', '교내 프로그램 내용 부실',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재학생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에 건의하여 부실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될 수 있도록 행동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자신과 학교의 가치를 높이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한성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번 학기에도 학교 내 많은 부서가 한성 공지, 낙산의 매리리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본교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내 프로그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혜택이다. 그러니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는 한성인이 되어보길 바란다.

2014 한성인문화탐방기행단을 다녀와서



한성인끼

원정효 기행단장
(산업경영 4)

지난여름 방학 2014 한성인문화탐방기행단의 단장을 맡았던 원정효입니다. 문화탐방기행단은 2003년도 금강산을 시작하여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도 중국 상해 일대를 탐방해 수많은 한성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에 또 다른 학우 여러분에게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넓은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써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저희 한성인문화탐방기행단은 서울보다 더욱 뜨거운 상해로 향했습니다. 울હે는 상해, 소주, 항주, 주장 일대를 탐방하였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기반이 된 임시정부청사나 중국의 명물인 동방명주나 송성가무소 등을 보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다녀온 중국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나 전통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과거부터 한민족과 함께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만큼 탐방하였던 지역 모두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기행 이외에도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의 생활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으며, 한국인의 입맛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화탐방기행단은 한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4박 5일간의 여행을 통하여 많은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4학년으로서 앞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한성인문화탐방기행단으로 중국을 탐방하면

서 느꼈던 점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은데(해외관련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등) 많은 학우 분들이 잘 모르고 무심결에 지나치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성인문화탐방기행단 역시 많은 학우분들이 놓치고 있는 좋은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행에 참여하신 학생회장님과 모든 학우들이 무탈히 그리고 유쾌하게 기행을 잘 마쳤습니다. 아직도 지난 여름방학 중국에서의 뜨거운 공기와 한성인의 열정이 생생합니다. 친한 친구 혹은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한성인 문화탐방기행단. 내년 여름방학, 제가 아닌 다른 많은 학우분들 역시 한성인으로서, 문화탐방기행단으로서 더 넓은 땅을 밟고 더 넓은 세계를 보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낙산만평

한지선(인생철 1)



꿈의 대화

박두홍 스포츠 마케터를 만나다.

‘꿈의 대화’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본교 학생)가 만나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편집자주)

INVICTUS, 굴하지 않는 자! 스포츠 마케터

지난 5월 부산 광안대교에서 마라톤이 개최되었다. 바다를 달리는 이 행사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그들이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결승점에 도착할 때 비록 같이 뛰지는 않았어도 뒤에서 그들과 함께 희열을 느끼는 이가 있다. 마라톤에 당사자도 그들의 가족도 아닌 마라톤을 기획한 스포츠 마케터다.

스포츠 마케터는 기업 인지도 상승을 위한 후원 업무, 스포츠 이벤트 관리, 선수 매니지먼트, 캐릭터 상품 활동과 선수, 스포츠 브랜드의 브랜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꿈의 대화에서는 스포츠 마케터가 스포츠 마케터라고 말하는 박두홍 스포츠 마케터를 만났다.

멘티: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들었습니다. 마케터님께서 정의하시는 스포츠 마케터란 무엇입니까?

멘토: 보통 프로 스포츠, 체육회, 조직 위원회, 일반 기업, 브랜드, 에이전시 등의 스포츠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스포츠 마케터라 부릅니다. 스포츠 마케터는 스포츠 브랜드 상품 기획에서부터 생산·판매·관측에 이르는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멘티: 스포츠 마케팅이 일반 마케팅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점과 매력 가지고 있습니까?

멘토: 스포츠 마케팅과 일반 마케팅의 차이는 스포츠와의 관계 여부입니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은 소비자를 스포츠 자체에 참여시켜 소비를 이끈다는 점에서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스포츠를 즐기고 그 결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멘티: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멘토: 저는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란에 스포츠마케터를 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류현진 야구 선수의 모교인 인천 동산고에서 야구 선수였고 고교에서는 야구 대표로서 근무하셨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한화의 정민태 코치를 비롯해 많은 야구 선수들이 저의 선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구를 통해 스포츠를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체육교육학을 전공한 배우 신현준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터와 관련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읽고 스포츠 마케터에 관심이 생겨 마케팅을 공부하게 되고 마음 먹었습니다.

멘티: 스포츠 마케터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멘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론 공부나 관련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기 보다 앞으로의 비전을 위한 자기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업무 상황에서 소통 하기위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헝그리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마케터는 계약직이나 인턴도 마다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학 진학 후 MBC ESPN(현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 메스트(MEST)에 가입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터 1세대 분들에게 스포츠 마케팅을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멘티: World21HQ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아디다스와 계약으로 마이 런을 성사시켰다고 들었는데 그 일화가 궁금합니다.

멘토: 일단 마이 런은 World21HQ의 성과입니다. 국내에서 제2도시인 부산 바다 위를 달리는 것이 낭만적이지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에서 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이 마라톤 행사를 진행할 때 난관도 있었습니다. 광안대교는 흔히 물류의 동맥이라 불립니다. 화물차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리죠. 이러한 다리 위에서 마라톤을 진행하려면 시의 허락부터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까지 대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년에 3천 명, 작년에 7천 명이 참여한 것에 이어 올해 진행된 3회의 행사에는 2만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이 런을 진행했습니다.

멘티: 마케터님께서 창업하신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nvictus(인빅터스)의 창업 계기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멘토: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다녔어요. 그때 영국에서 재능기부 사

멘티: 지금까지 스포츠 마케터로 일하시면서 가장

가슴이 벅찼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멘토: 매 순간 가슴이 벅차지만 가장 눈에 띄는 순간은 바로 마이 런 같은 대규모 행사입니다. 처음 마이 런을 진행했을 당시 7천 명의 참가자들이 광안대교를 달리는 순간 광안대교가 그 발걸음에 흔들렸습니. 그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달리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이 끝난 지점에 눈물을 흘리며 들어올 때 제가 완주에 성공한 것처럼 희열을 느꼈습니다.

멘티: 스포츠 마케터가 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소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멘토: 일단 스포츠를 좋아하고 열정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다

양한 경험을 쌓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 특히 여행을 추천합니다. 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각국의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 산업 등을 분석하며 여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게 굉장한 메리트이자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하나로 뭉친 이번 꿈의 대화는 스포츠만큼 열정이 넘치는 남자들의 대화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약속한 두 시간의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꿈에 대한 멘티와 멘토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들에게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넘어 사나이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시간을 과거로 돌린다 해도 망설임 없이 스포츠 마케터를 선택하겠다는 박두홍 마케터는 그의 꿈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 했다.

만약 스포츠를 좋아하고 도전과 열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을 꿈꿔 보는 것이 어떨까.

최혜정 기자
hipo96@hansung.ac.kr



▲ 멘티의 질문에 답하는 박두홍 스포츠 마케터.



▲ 왼쪽부터 멘토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김수려(경영 1), 한동일(경영 1), 성승화(경영 1) 학생이다.

대학원의 품격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대학원에 가다

교내 특수대학원
평가 1위,
부동산대학원



▲ 임병준 교수가 부동산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진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창의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가치를 재창조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00년 12월 국내 최초로 본교 부동산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실용적인 전문연구분야입과 동시에 응용과학분야인 부동산을 체계화하기 위해 법률,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인 이론과 실무 중심을 교육하는 것이 본교 부동산대학원의 설립 취지이다.

부동산대학원의 세부 전공에는 부동산투자금융 전공과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전공, 부동산 평가 전공, 지적 및 토지관리 전공이 있다. 부동산투자금

융 전공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합하여 재무이론에 기초를 둔 부동산투자자와 금융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전공은 부동산 가치의 재창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 사업성 검토, 금융 조달 및 자산관리 등 부동산개발과 관리의 다양한 기본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습득한다. 부동산 평가 전공은 부동산의 가치평가 원리와 기법을 통해 현재제도를 검토하고 발전전략을 연구하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분야이다.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핵심 분야에 해당한다. 지적 및 토

지관리 전공은 지적의 발달과정과 토지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여 구체적인 활용기법을 연마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세부 전공을 갖춘 본교 부동산대학원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출석과 수업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과 논문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임병준(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변호사들도 본교 부동산대학원에 입학한다”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원생들의 일부는 교내 박사과정까지 진학한다”고 밝혔다. 4학기제인 본교 부동산 대학원은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추가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현재 한 학기에 12개 과목을 개설함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고 풍부해 다양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교내 특수대학원 평가가 도입된 이래 6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대학원은 일본과의 교류 외에도 중국, 호주, 미국 등으로 교류의 폭을 확대해 세계적인 흐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오혜진 기자
dhgwls0424@hansung.ac.kr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생활 1)

과연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일까?

행동경제학, 주류경제학의 구멍을 메꾸다



항상 철두철미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완벽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 불러도 좋다.

주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 경제인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 단어는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동기와 같은 외적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인간'을 가리킨다. 이때 경제적 인간은 합리성, 이기심, 자기이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기도 않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종종 돌아오는 이익도 없는데 기부를 하거나,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아하는 브랜드의 물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분명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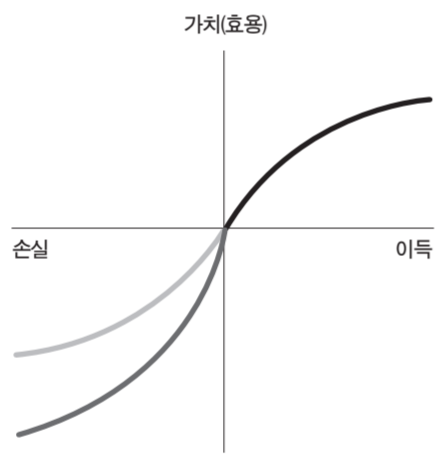
그럼 인간은 비합리적인가? 그것은 아니다. '행동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에서 배제하던 인간의 '비합리성'을 인정한 것이다.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은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도, 완벽히 분석할 수도 없으며 '제한적 합리성'을 이론화했다.

지만 모든 게 해결된다. 경제학에서는 빵을 먹을 때 100, 밥을 먹을 때 70, 돌을 먹을 때 30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확하게 수치로 효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처럼 경제학에서 비합리적이거나 하는 선택들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행동경제학은 비합리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공정성, 행복, 시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한다.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 '프로스펙트 이론'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1979년 위험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다룬 프로스펙트이론(Prospect Theory)으로 행동경제학의 선구자로 자리잡았다. 프로스펙트이론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 따른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점인 '가치함수'이다. 준거점을 기준으로 한 가치가 중요하다는 '준거점 의존성', 금액이 적을 때 오히려 이익과 손실



▲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함수

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민감도 체감성', 손실은 이득과 같은 액수더라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손실회피성' 등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의 손실회피(loss aversion)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연히 길을 가다 1만 원을 주운 일보다 1만 원을 잃어버린 일이 두 배는 괴로운 것도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무거나 대충 선택하는 '휴리스틱'

휴리스틱은 합리적이기 못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근거로 삼는 간편한 수단이 되는 방법을 사용해 대충 어렵잡잡으로 정하는 것이다. 오늘 점심으로 빵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하는 선택에서 경제인이라면 밥과 빵이 주는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고르겠지만, 우리는 대충 친구에게 "아무거나" 먹자고 말한다. 이게 바로 휴리스틱이다.

휴리스틱의 가장 큰 특징은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 가운데 가장 이용하기 쉬운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겪은 일 일수록 더욱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이다. 가령 사망률 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을, 교통사고를 당한 적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1위로 꼽는다. 이외에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으로, 원조라는 말이 붙은 가게에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카너먼이 제시한 휴리스틱 이론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존재임을 증명했다.

이기적인듯 공정한

행동경제학에서 '최후통첩게임'이라 알려진 유명한 실험이 있다. A에게 10만원을 주고, 옆에 있는 B와 마음대로 나누기자라고

해보자. 단 B가 자기 몫이 너무 적다고 거절하면 A 역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주류경제학에서는 A는 이기심에 따라 1만 원만 제안해도 좋다. 상대방 역시 1만 원이라도 가지는 것이 이득이다. 그럼에도 A는 절반 가까운 돈을 나눠준다. 만약 A가 만원을 제시했다면 B는 비양심적이라며 돈을 내던질 가능성이 높다. 재밌는 사실은 B가 어떤 금액을 받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 '독재자 게임'에서도 A가 절반에 가까운 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실험은 인간은 자신의 손실을 각오하면서까지 사회적으로 공정한 일을 지킨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주류경제학이 비합리적이거나 말하는 행동들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본다. 김상봉 교수는 "한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이 지역 사람들이 삶을 많이 필요로 하자 시장경제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1만 원이던 삼의 가격을 2만 원으로 팔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공정한가. 재해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삼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은 공정한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행동경제학은 이타적인 행동들이 공동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한다.

행동경제학은 기업과 정부, 각종 조직이 활용하기 좋은 학문이다. 광범위한 학문 연구가 진행된 것은 2002년 카너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후부터로 이제 겨우 10년 정도이다. 학문으로는 아직 한참 갈 길이 먼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도 행동경제학에 대한 수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행동경제학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경영학, 국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 말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오픈BOOK 테스트

오픈 북 테스트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전공 서적을 몰두하여 읽어 내리는 것처럼 인성이란 시험속에서 도움이 되는 책을 교수님께 소개받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독립운동가가 걸은 가시밭길을 따라가 봄으로써, 현재 나의 삶의 좌표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

-조규태 교수(역사문화학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으로, 희뿌연 안개 속에서 진로를 찾기 못하고 방황하는 대학생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국민의 회복이란 실낱 같은 희망을 좇아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던진 선배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다음의 두 책을 소개한다.

돌베개



장준하 / 세계사 / 1992

장준하의 『돌베개』는 독립운동가·언론인·정치인·민주화운동가인 장준하의 자서전이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학병으로 동원된 장준하가 1944년 7월 중국 쉬저우(徐州)의 일본부대를 탈출하여 충칭(重慶)에 위치한 광복군을 찾아가는 6천리의 여정에 관한 내용이다.

김좌진 평전



박현 / 선인 / 2010

박현의 『김좌진 평전』은 북로군정서의 사령관과 신민부의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으로 활동한 김좌진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김좌진의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그의 피살에 얽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문하는 너

인문하는 너는 성격, 취미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통찰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인문학 칼럼 코너입니다.

망치를 들고 생각하기

“세상은 진짜보다 우상이 더 많다. 나는 위대한 인간들을 찾았었지만, 언제 나 그 인간의 이상을 흉내 내는 원숭이 들만을 발견했을 뿐이다.” - (우상의 황혼), 니체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보다 우상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TV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진짜가 아니라 우상이다. 우리가 인류의 지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철학자들, 현자들, 시인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신은 상처에 의해 성장한다. 우상을 깨부수는 일은 우리의 정신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 우리는 상처 입는다. 하지만 그 상처의 충격이 가지고 생애가 생길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며 누구도 연지 못한 나만의 생각들이 솟아날 것이다.

니체는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렀다. 왜 그는 망치를 들어야만 했을까? 그래야 진짜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신은 죽었다'는 말에서 그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성이 만들어낸 도덕과 규범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덕은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며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 사실 도덕이나 규범, 윤리 같은 것들은 특정시대의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런 도덕이 사로잡혀서는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없다.

니체가 플라톤의 형이상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힐난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도덕이나 목적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려하기 때문이다.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안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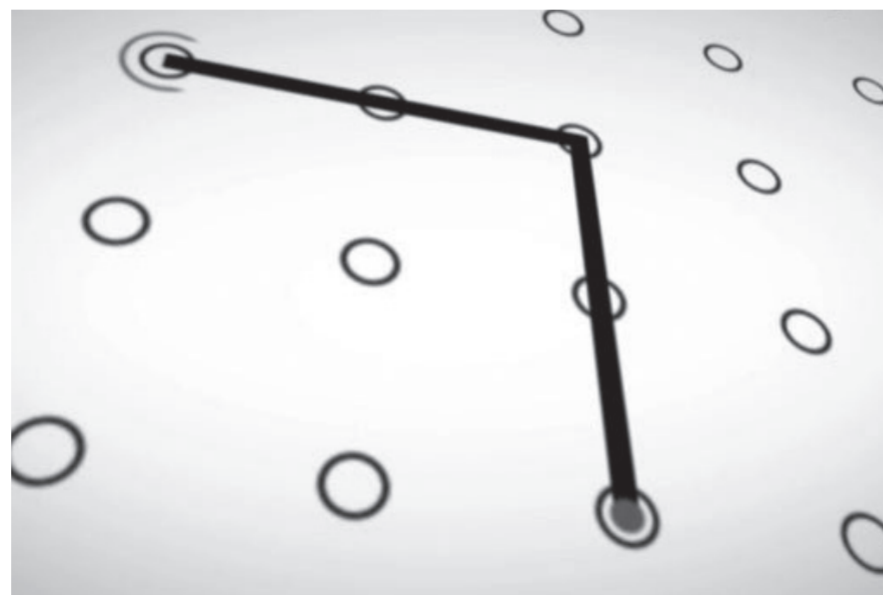
자기개발과 책임기의 전문가

저서 『청춘의 인문학』 『인문학 공부법』

똑! 똑! 연구중이세요?

학문의 정당, 대학에서 '대학연구소'는 끊임 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과 모험적인 설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이나 실생활에 이용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곳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해보자. (편집자주)

⑤ 김효용 & KTMA팀



▲ 김효용 교수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글자로 마음을 움직인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나 TV광고에서 글자가 움직이면서 감각적인 영상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움직이는 예술 '키네틱 아트'가 만난 것이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움직이는 글자로 자유롭게 글자의 의미를 전달하는 영상 디자인 기법이다. 예전의 타이포그래피는 2차원적인 형태, 인쇄 작업으로 표현했다. 지금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로 시

각과 청각 모두를 만족시키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저작도구들은 움직이는 글자를 만드는 데에 용이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반고 김효용(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는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저작 기술을 개발하여 미디어 아

트로 구현하는 연구를 맡고 있다.

김효용 교수와 KTMA(Kinetic Typography Media Art)팀은 2012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팀으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 아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감성전달을 위한 핵심적인 원천 기술 개발'이다. 이를 위해 숙명여대, 연세대, 서울대와 (주)코도스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컴퓨터이론을 바탕으로 미디어아트 작품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모션그래피 영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으로 소통을 위한 메시지 전달 시스템과 폰트 렌더링 엔진을 개발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KTMA팀은 2012년부터 꾸준히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와 미디어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팽창동계올림픽 비엔날레에서도 초대되어 인터랙티브 영상을 선보였다. 지난 11월 5일 KTMA팀은 성복예술창작터에서 '인터랙티브 플레이'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심미'적인 부분을 강조한 영상작품과 림(Leap)모션기술과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작품제작에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김효용 교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기존의 이모티콘 보다 더 확실한 글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에서처럼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로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기술 개발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금 각 국내에서는 KTMA팀의 미디어 작품들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기술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 이런 창조적인 노력들은 우리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다. 다양한 감정을 담은 글자들을 누구나 쉽게 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보자.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버려진 산업시설이나 오래된 건물이 주목받는다. 버려진 것에 새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이 바로 그 예이다. 낡아진 모습 그대로 방치되었던 화력발전소를 예술 공간으로 만들자 세계에서 유명한 미술관이 탄생했다.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거리를 흥흥하게 만들던 낡고 허름한 건물을 다들으니 금세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공간재생'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서울 문화재단의 창작공간과 폐건물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커피공정을 찾아가 보았다. 그야말로 빈티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것의 아름다움이 물씬 풍긴다. (편집자주)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ac.kr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컨베이어 벨트와 1910년식 로스팅기계가 돋보이는 '엔트러사이트'.

버려진 공간 예술로 피어나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센터'라는 말 대신 '보건소'라는 말이 어울린다.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서울 문화재단의 7번째 창작공간으로 옛 성북보건소를 리모델링해 2009년 개관했다. '보건소 건물을 재사용했을 수도 있지'하고 지나치기엔 아까운 곳이다. 창작보건소는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의 다른 창작공간과 차별화된 강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치유, 소통, 나눔을 모두로 '예술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의 특색을 살려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다. 미술치료사와 음악치료사들이 힐링아트랩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어린이, 노인, 탈정소

년, 장애인에서 성인들까지 치료의 대상은 모든 시민들이다. 1층으로 들어가면 예술다방이 먼저 맞이한다. 벽면에 선반 가득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알약병이 채워져 있다. 보건소에서 두고 간 신장계도 양증맞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력검사 종이와 치료의 자, X-Ray 활영기가 보건소 소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하에는 밴드실이 있고, 옥상에는 텃밭이 주민들을 위해 열려있다. 아쉽게도 현재 입주 작가들의 전시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오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커피 바리스타 강좌 <우리동네 바리스타>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수강생을 모집하고 고 있고 1회 수업으로 진행된다.



▲ 예술로 치료하러 가는 창작보건소. '성북예술창작센터'의 1층 예술다방.

금천예술공장

마을버스에서 내려 다양한 공장들을 구경하며 걷다보면 공장 지붕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대형 철 로봇을 발견할 수 있다.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예술공장 내부는 각종 묘목과 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옛 공장 사무실답게 긴 복도와 사이사이에 위치한 작가들의 작업실이 빼곡히 위치해 있다. 긴 복도 끝에는 오픈키친과 다용도 테이블이 있어 주민들과 작가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천예술공장이 입지한 독산동 일대는 IT산업에서 의류산업까지 온갖 제조업이 활성화된 서울 시내 대표적 공업지역이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흐름 아래 설계된 금천예술공장은 독산동 일대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는 금천예술공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는 예술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저변에 기여한다. 버려진 화분들을 이용하여 공동정원을 제작하거나 함께 벽화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금천예술공장 주변의 노동자와 기술자가 예술공장에 입주한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 허름한 신발공장을 그대로 사용한 '엔트러사이트'.

엔트러사이트

홍대역과 상수역 중간쯤, 미로 같은 빌라들 사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2층짜리 낡은 공장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이라 미처 못 보고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작은 문 사이로 안을 엿보면 허름한 외관은 반전매력을 위한 장치인 듯 감탄할 정도로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이 오래된 건물은 가동 정지된 신발공장으로, 공간재생을 통해 지금은 '엔트러사이트'라는 이름의 카페이자 커피 공장이 되었다. 외관부터 일반 카페와는 다른 엔트러사이트의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 기발한 공간이 펼쳐진다. 신발공장에서 버려두고 간 컨베이어 벨트가 마치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 온 아이처럼 즐거운 느낌을 준다. 컨베이어 벨트 뒤로는 기차처럼 큰 커피 로스팅 기계가 공장처럼 작동되고 있다. 매일 아침 원두를 로스팅하는 이 기계는 1910년식 빈티지 기계라고 한다. 2층으로 올라가면 넓은 공간 가운데를 딱하니 가르는 구멍 뚫린 벽이 있다. '왜 낡은 것들을 사용했을까?'라는 질문이 무색할 만큼, 옛 폐 공장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더니 오래된 것들이 가진 세월의 흔적들이 감성을 자극했다. 김평래 대표는 우연히 발견한 낡은 공장을 갖고 다들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시켰다. 엔트러사이트는 공간이 가장 매력적이지만, 커피의 맛 또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으니 이달 말까지 전시되는 알베르 카뮈의 '최초의 인간'을 감상하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어떨까.



▲ 버려진 인쇄공장에서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금천예술공장'.



▲ 철근을 인테리어로 활용한 '금천예술공장'의 1층 로비.

연들♥연들

'연들연들, 연애고민 들어들어오는 한성대 학우들이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려는 단계에서 겪는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코너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보고 싶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남자친구는 저에게 좋아하지만 사귄 수가 없으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귄 수 없는 이유가 여자 과 선택 중 한 명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사귀고 싶지만 과 선택을 무시하면 자신의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아 나중에 사귀려고 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워낙 마음이 잘 통했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자주 전화하고 제 남자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겁니다. 심지어 군대를 3년 뒤에 갔다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전문가의 조언

저는 수많은 사람의 연애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무지 상식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이라는 관념조차 개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상담 사례의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약간 성격도 예뻐요. 여자 선택 한 명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소심한. 이런 남자의 경우, 별일도 아닌 일로 헤어질 가능성 또한 큼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해야 합니다. 비록 이런 상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감당하고 용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세요. 만약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본인의 속마음을 사실대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남자분도 과 선택해, 여자 친구님을 저울질하며 나름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자신의 가치와 진심의 전달 없이, 막연히 3년을 기다려달라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게 되면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피곤한 연애를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송창민

『연애의 신』
『연애 바이블』의 저자이자 연애 컨설턴트
다들카페 '송창민의 이기적인 연애' 운영 중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lovestudy78



다원: 다원이란 '모두가 원하는'이라는 순 우리말로 한성대 학우 모두가 좋아할만한 연극표를 드리는 독자 참여형 이벤트 코너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496호 신문을 읽고 독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신의 흥미를 끄거나 마음에 드는 기사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연극 '발칙한 로맨스' 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발송하여 주세요.

지난 495호의 당첨자는 남형권(경영 3), 박소영(경영 3), 김강산(지정 4)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절대공감 200% 로맨틱코미디 NO.1

로맨틱코미디 연극

극적인 하룻밤

거침없이 **확**하고 사정없이 **새**롭하다!
본격 **연애** **소동극!!**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 9월26일 OPEN